

# 트럼프 대통령의 사우디 순방과 미국의 신(新) 중동 전략

김수완 한국외국어대학교 아랍어통번역학과 학과장

## 주요내용

- ▶ 트럼프 대통령은 행정부 출범 두 달 만에 이루어진 해외 순방의 첫 번째 목적지로 중동 지역, 그중에서도 수니파의 맹주 국가인 사우디아라비아를 지목함.
- ▶ 트럼프 대통령은 5월 20일 살만 사우디 국왕과 가진 정상회담에서 정치, 경제, 군사 등 다방면에서의 양국 간 협력 방안을 심도있게 논의함.
- ▶ 정치적인 관점에선 사우디 등 걸프국가들의 반(反)이란 연대를 구축, 경제적으로 약 1,100억 달러의 무기 수출 등이 화제가 됨.
- ▶ 사우디를 비롯한 걸프국가들의 반이란 연대 노선 움직임에 이스라엘이 참여할 가능성, 중동 내 극단주의 확산에 대한 우려가 나오는 등 트럼프 대통령의 사우디 순방은 추후 미국의 새로운 대중동 전략에 대한 많은 단서들을 제공함.

## 1. 이슈 현황

▶ 트럼프 대통령은 행정부 출범 두 달 만에 이루어진 해외 순방의 첫 번째 목적지로 중동 지역, 그중에서도 수니파의 맹주국가인 사우디아라비아를 지목함.

□ 행정부 출범 이후 반이민 행정명령에 이란을 테러 위협 국가로 지목하는 등 트럼프 대통령은 대선 기간과 마찬가지로 이란에 강경책을 발휘해왔음.

- 오바마 행정부의 핵 협상을 실패작으로 평가한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이 전 세계적인 테러조직에 자금과 무기를 제공한다는 주장을 펼치며 강도 높게 비난함.
- 각국의 이해관계를 최대한 수용하는 다자주의에 입각한 외교정책을 펼치던 오바마 전 대통령과 달리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입장을 밀어붙이는 일방주의적 외교정책으로 이란을 궁지에 몰아넣어 왔음.

- 이 와중에 자신의 첫 해외 순방지로 이란의 적대 국가이자 수니파의 맹주인 사우디아라비아를 선택한 것은 추후 미국의 신 대중동전략을 예측할 수 있는 외교 행보였음.
  - 반(反)이란 연대라는 명분으로 사우디아라비아를 중심으로 걸프국가들의 참여를 유도, 양측이 대치하고 있는 페르시아만에 친미블록 형성을 꾀하고 있음.
  - 이에 대해 익명의 백악관 관계자는 사우디에서 가진 트럼프의 회담이 이란에 대항하는 걸프국가들의 협력은 물론, 이스라엘의 동참까지 불러올 수 있는 놀라운 일이라고 언급함.<sup>1)</sup>
  - 중동 내 국가들에 대해 비교적 균형적인 자세를 견지하던 오바마 전 대통령의 대중동전략과는 큰 차이를 보이는 대목임.
- 또한 미국은 사우디와의 경제협력을 통해 미국 경제를 활성화할 계획임.
  - 금번 사우디 순방 중 가장 큰 화제로 떠오른 것은 미국의 대규모 무기수출 계약이었음.
  - 총 1,100억 달러의 규모였으며 향후 10년간 3,500억 달러로 확대시킨다는 내용이었음.
  - 이는 지난해 11월 이란 핵 협상 타결의 긍정적 결과로 평가받던 166억 달러 규모의 대이란 보잉 민항기 수출과 비교할 수 없는 규모임.
  - 이번 계약에 영국 싱크마켓 수석 애널리스트인 나임 아슬람(Naeem Aslam)은 트럼프 대통령이 더 큰 규모의 무기 수출을 추진할 것이며 미국 내 방산 업체도 크게 성장할 것이라 전망함.<sup>2)</sup>
  - 이란 핵 협상으로 미국의 소비재 수출에 대한 기대가 있었다면, 금번의 사우디 순방은 미국 방산 업체와 우주항공업체 등 전략사업 분야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음.
  - 트럼프 대통령에 의해 성사된 대규모 무기 수출 소식은 일자리 창출과 관련 업체의 성장 등 미국 경제의 활성화에 대한 기대감을 높임.

## 2. 원인과 분석

### ▶ 친이스라엘에서 친사우디(걸프)로 급선회한 대중동전략

- 집권 이전까지만 해도 트럼프 대통령은 이스라엘의 행보에 대해 전폭적인 지지 의사를 밝히며 많은 아랍 국가들의 우려를 자아냄.
  - 특히 지난해 12월에 있었던 텔아비브 미 대사관의 예루살렘 이전 발표는 예루살렘을 이스라엘 수도로 공식 인정한다는 의미로서 팔레스타인의 존재를 부정한다는 논란이 있었음.
  - 그러나 지난 2월 9일 요르단 압둘라 국왕과의 접견 후 트럼프 대통령과 이후 출범한 행정부의 태도엔 일정 부분 변화가 있었음.
    - 접견 직후 트럼프 대통령은 기존의 친이스라엘 지지 입장에서 다소 물러나 예루살렘으로의 대사관 이전과 이스라엘의 정착촌 건설에 부정적인 태도를 보임.

1) In first foreign swing. Trump works to reposition US allies (2017. 5. 23.), CNN, (검색일 : 2017. 5. 24.),

2) Defense stocks at record highs on Trump-Saudi deal(2017. 5. 22.), CNN-money, (검색일 : 2017. 5. 24.)

- 취임 후엔 사우디, 이집트, 아랍에미리트 정상들과 잇달아 통화를 하는 등 현안에 대한 아랍권 국가들과의 논의를 활발하게 진행함.
- 결론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의 사우디 순방은 요르단 압둘라 국왕이 제시한 ‘아랍 동맹 역할론’이 기존의 ‘친이스라엘 전략’을 밀어낸 결과로 분석됨.

□ 비록 이스라엘이 군사부문에선 막강한 전력을 과시하고 있지만, 중동 내 지역 강국으로서의 정치적 영향력과 OPEC의 핵심 국가로서의 경제적 영향력을 고려해봤을 때 트럼프 대통령은 중동 내 최적의 파트너로 사우디를 낙점한 것으로 보임.

- 특히 이란과는 적대관계라는 점과 이스라엘과 달리 반이란 연대에 다른 아랍 국가들까지 끌어들이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매력적인 파트너로 볼 수 있음.
- 1981년 사우디가 중심이 되어 창설된 걸프협력기구(GCC)는 표면적으론 걸프국가들 간의 다방면적인 협력을 증시하고 있음.
- 그러나 실질적으론 1979년 이슬람 혁명으로 반서방 노선을 견지하고 시아파 혁명사상 전파를 추진하는 이란을 견제하기 위한 목적이었다는 게 지배적인 분석임.
- 팔라비 왕정을 무너뜨리고 이슬람 공화정을 수립한 이란의 정치적 변동은 석유자본을 기반으로 한 걸프의 왕정국가들에게 큰 위협으로 다가왔기 때문.
- 걸프전과 이라크전, 이란의 미사일 개발과 해군력 증강으로 초래된 안보적 위기 속에서 사우디는 군사력 증강의 필요성을 인식하게 되었으며, 곧 무기 시장의 큰손으로 등장하게 됨.
- 반이란 연대를 구축할 이해관계와 역량이 있으며 산유국으로서 세계 최대의 무기시장으로 떠오르고 있다는 점에서 사우디는 정치적, 경제적 협력 관계를 맺을 수 있는 미국의 최우선 동맹국으로 급부상함.

□ 걸프국가들이 주축이 된 트럼프 대통령의 대중동전략 구상과 이스라엘의 동참 여부가 주요 관심사임.

- 현재 걸프국가들의 반이란 연대 움직임은 사우디를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이는 실질적으로 미국의 주도로 추진되고 있음.
- 이러한 트럼프 대통령의 중동 질서 재편에 대해 일각에선 아이젠하워 행정부의 바그다드 조약기구<sup>3)</sup> 해체 이후 중동지역 내 집단방위체제, 이른바 ‘아랍판 나토(NATO)’의 창설도 예측됨.<sup>4)</sup>
- 한편으로 걸프국가들의 반이란 연대에 대한 이스라엘의 참여 여부도 기존의 아랍 대 이스라엘의 구도에 급격한 변화를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주요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음.<sup>5)</sup>
  - 과거 소련을 견제하기 위해 아이젠하워 행정부가 추진했던 중동지역 내 안보기구 창설 시도는 각 동맹국 간의 이해관계 수렴과 정체성 형성에 실패하였기 때문이었음.

3) 1955년 아이젠하워 행정부는 소련을 견제하기 위해 이란, 터키, 파키스탄, 영국, 이라크로 구성된 바그다드 조약기구를 창설함. 그러나 아랍민족주의 강화로 인한 동맹국 확보 실패, 이라크 쿠데타 등으로 1958년 해체됨. (김강석 외(2014), p. 15~20)

4) Why Donald Trump's 'Arab Nato' would be a terrible mistake(2017.5.22.), Guardian (검색일 : 2017. 5. 23.)

5) Trump's Saudi Arabia Trip Figures Into Plan for Palestinian Deal,(2017.5.23.) Newyork times, (검색일 : 2017. 5. 24.)

- 그러나 사우디를 중심으로 한 걸프국가들의 반이란 연대는 확실한 적대국의 존재와 동맹국 간의 동질감이 형성되어 있어 집단방위체제 수립의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음.

- 그러나 전임자였던 오바마 대통령과는 전혀 다른 트럼프의 이러한 외교적 행보에 대해 미국 내에선 수많은 논란과 비판이 존재함.<sup>6)</sup>
  - 오바마 대통령의 균형외교에서 벗어나 사우디와의 관계에 지나치게 치중하면서 중동 내 종파갈등을 야기하고 있다는 점.
  - 와하비즘의 과격화, 예멘 내전으로 인한 민간인 피해 등에 사우디 정부의 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외면하고 무기 수출 계약까지 했다는 점.
  - IS 격퇴전에 참여하고 있는 이라크 정부, 시리아 정부, 레바논 헤즈볼라는 이란의 영향력 하에 있어 해당 당사국, 정치 세력 간의 갈등은 물론 최종적인 IS 격퇴를 위한 국제사회의 공조까지 와해시킨다는 점.

### 3. 전망과 시사점

- ▶ 사우디를 비롯한 걸프국가들의 반이란 연대 노선 움직임에 이스라엘이 참여할 가능성, 중동 내 극단주의 확산에 대한 우려가 나오는 등 트럼프 대통령의 사우디 순방은 추후 미국의 새로운 대중동 전략에 대한 많은 단서들을 제공함.

- 오바마 행정부는 과거 카터 행정부처럼 동맹국에 대해서도 민주주의와 인권 보호 등을 강력하게 주장하였음.
  - 때문에 20세기 내내 친미국가와 반미국가로 양분되어 있었던 아랍권에서도 차츰 변화가 있었으며, 이로 인해 전통적인 친미국가였던 사우디의 반발, 오랫동안 적성 국가로 분류되었던 이란의 개방과 핵 협상 타결이 이루어질 수 있었음.
- 그러나 트럼프 행정부는 이러한 전임자의 노력이 오히려 중동 내 테러리즘과 IS의 발현을 초래했다고 진단하여 동맹국들과의 확실한 연대와 공조를 통한 폭력의 근절을 꾀하고 있음.
  - 이는 과거 부시 행정부의 대중동전략과 일치하지만, 동맹국들에게 해당 지역에 대한 일정 부분의 역할을 제시하면서 직접적인 군사행동 대신 간접적인 군사지원과 무기수출을 하는 방식의 차이가 있음.
  - 미군이 직접 개입하는 군사행동은 미 행정부에게 있어 큰 정치적인 부담이며 동시에 막대한 예산을 소모해야 하는 일임.
  - 그러한 점에서 트럼프 행정부의 대중동전략은 선택적 개입주의, 즉 개입은 최대한 자제하면서 동

6) Trump Bows to the Saudies(2017.5.23.), US-news, (검색일 : 2017. 5. 24.)

맹국들의 역할론을 강조하고 그에 따른 협력강화로 무기 수출 등의 경제적 이권을 취하는 새로운 전략이라 할 수 있음.

- 중동을 비롯해 현재 미국의 외교정책은 선택적 개입주의, 동맹국 협력 및 역할 강조 등 역대 행정부들이 추진한 외교정책과는 다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으며 이러한 정책의 궁극적인 목표는 결국 트럼프 대통령의 슬로건인 미국 우선주의라 할 수 있음.
  - 사드 배치에 관한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으로 촉발된 한미 간 방위금 분담 논란, 현재 유럽연합과 줄다리기를 하고 있는 나토 방위금 분담 문제<sup>7)</sup> 등 현재 트럼프 행정부는 각 지역에서 우방국과의 협력 강화를 통한 영향력 유지와 동시에 각국의 책임까지 강조하는 이중 전략을 구사하고 있음.
  - 이란이라는 적대국을 중심으로 연대 노선을 구축하고 있는 사우디, 이스라엘에도 추후 방위비 분담이나 혹은 대규모 무기 구매 등을 타진하면서 중동 지역 내 영향력 유지와 대외 지출 절약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겠다는 뜻이 나타남.
  - 궁극적으로 이는 미국 우선주의에 입각한 외교 전략의 일환이며 금번의 사우디 순방은 미국 우선주의를 기반으로 한 신(新) 중동 전략의 구축이자 그 시험무대로 평가할 수 있음.
- 미국이 강대국의 길을 걸을 수 있었던 가장 큰 원인 중 하나는 막강한 군사력, 즉 하드파워(Hard power)와 더불어 민주주의적 가치를 수호한다는 소프트 파워(Soft power)까지 겸비하고 있었기 때문임.
  - 오바마 행정부를 비롯한 역대 미국 대통령들이 아랍권에 매년 민주주의, 인권 보호를 주문하면서 아랍 사회에 소프트파워로서의 역량을 발휘했던 것과 달리, 금번의 트럼프 행정부의 대중동 외교 행보에선 그러한 모습은 전혀 찾아볼 수 없었음.
  - 이러한 행보는 국익을 위해서라면 민주주의와 인권 보호 등 그 간 미국의 지향점들에 더 이상 연연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나타내고 있음.
  - 트럼프 행정부의 매우 합리적이고 계산적인 대중동 전략은 정치와 경제, 군사 부문에서의 대외적 영향력 확대라는 하드파워는 강화하겠지만 동시에 세계 민주주의를 수호한다는 미국의 정신 즉 소프트파워는 서서히 붕괴될 것이라는 우려가 존재함.
  - 중동에 대한 미국의 새로운 전략은 많은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는 만큼 시시각각 변하는 중동 내 역학 구도와 미국의 대응을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음. **EMERiCs**

7) 지난 2월 제임스 매티스 미 국방부 장관은 나토 장관 회의를 통한 서면 발언에서 나토에 투입되는 방위금을 유럽연합국가들이 조금 더 부담해야 한다는 공식 입장을 밝혔다.

## 참고문헌

- In first foreign swing. Trump works to reposition US allies (2017.5.23.), CNN, (검색일 : 2017. 5. 24.), <http://edition.cnn.com/2017/05/23/politics/trump-foreign-trip-iran-allies/>
- Defense stocks at record highs on Trump-Saudi deal(2017.5.22.), CNN-money, (검색일 : 2017.5.24.) <http://www.wfmz.com/news/defense-stocks-at-record-highs-on-trumpsaudi-deal/511434854>
- Why Donald Trump's 'Arab Nato' would be a terrible mistake(2017.5.22.), Guardian (검색일 : 2017.5.23.) <https://www.theguardian.com/commentisfree/2017/may/22/why-donald-trumps-arab-nato-would-be-a-terrible-mistake>
- Trump's Saudi Arabia Trip Figures Into Plan for Palestinian Deal,(2017.5.23.) Newyork times, (검색일 : 2017. 5. 24) [https://www.nytimes.com/2017/05/23/world/middleeast/trump-trip-saudi-arabia-palestinians.html?\\_r=0](https://www.nytimes.com/2017/05/23/world/middleeast/trump-trip-saudi-arabia-palestinians.html?_r=0)
- Trump Bows to the Saudies(2017.5.23.), US-news, (검색일 : 2017. 5. 24.) <https://www.usnews.com/opinion/world-report/articles/2017-05-23/president-trumps-tragic-bowing-before-saudi-arabia-will-have-big-costs>
- 김강석, 아이젠하워 행정부의 중동 집단방위체제 구상의 좌절, 한국중동학회논총 제34권4호, 한국중동학회, 2014

## 💡 알립니다

- EMERiCs 이슈분석은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에서 발간하고 있으며, 저작권 정책은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표시기준 제 3유형'에 따릅니다. 해당 원고에 대해 사전 동의 없이 상업 상 또는 다른 목적으로 무단 전재·변경·제 3자 배포 등을 금합니다. 또한 본 원고를 인용하시거나 활용하실 경우 △출처 표기 △원본 변경 불가 등의 이용 규칙을 지켜셔야 합니다.
- 본 원고에 대한 글, 그림, 사진 등 저작권자가 표시되어 있지 않은 모든 자료에 대한 저작권 책임은 저자 본인에게 있으며, 해당 원고의 의견은 KIEP 및 EMERiCs의 공식적인 입장을 대변하고 있지 않습니다.